오지마을 발 돼주는 마을택시

순창군 이용한도 대폭 확대
이용금액 1400원으로 저렴
주민 교통불편 해소 '호응'

순창군민이 마을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순창군이 마을택시 이용 한도를 대폭 확대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말끔히 해결했다.

군은 10일부터 오지마을 마을택시 이용 한도를 대폭 높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이거나 버스승강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버스이용이 불편한 오지마을 48개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편의 정책이다. 마을 주민들은 택시 이용시 1,400원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버스를 타기 위해 승강장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이 없어 오지마을 주민들이 장날이나 병원이용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용횟수가 정해져 있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 군은 마을택시 확대 여론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이용 한도를 확대 했다.

기존 20명 미만인 마을은 월 15회에서 30회로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는 20회에서 40회로, 30명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월 30회에서 60회로 확대했다. 인구수 50명이상 100명 미만인 마을에 대해서는 40회에서 80회로 인구수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회에서 100회로 확대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돼 이용시 불편이 없을 걸로 확신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마을택시 운행 확대에 따라 군민들이 교통편의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택시업계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생활민원해결사 '120봉사대' 출동

남원시 전 공무원 통신원 지정
30분이내 현장… 타이밍 행정

남원시 전 공무원이 생활민원 해결사로 나선다.

120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생활현장 통신원으로 지정해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는 타이밍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생활현장 통신원 위촉은 시민 생활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현지출장 중에 불편사항을 느꼈거나 목격했을 경우 120민원봉사대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20민원봉사대는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취한다. 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5일 이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생활현장 통신원 제도가 정착되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보다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120민원봉사대는 그동안 상시순찰을 통해 도로(교량), 교통시설, 하수도시설,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 생활민원 해결에 앞장서 시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9일 임실읍 이종래, 이현묘씨 부부와 성수면 이장협의회는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장인 심 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어려운 학생 면학정진 도움되길"

임실군, 인재양성 위한 장학금 기부 줄이어

무술년 새해를 맞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임실읍 이종래, 이현묘씨 부부와 성수면 이장협의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장인 심 민 군수에게 전달했다.

임실읍 성가리에 살고 있는 이종래씨 부부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우이웃돕기, 저소득층 봉사활동 등 꾸준한 선행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이들 부부는 이날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면학에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또 장학금을 기부한 성수면 이장협의회는 성수면 21개 마을의 이장회원들로 구성, 지역민과 함께 성수면발전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은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마련을 위해 십시일반 장학기금을 모아, 이날 전달했다. 윤 용 회장은 "이장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지역발전의 초석인 장학사업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보람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심 민 이사장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이처럼 큰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장학사업과 봉황인재학당을 내실있게 운영, 품격있는 교육이 함께하는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임실군 애향장학회는 지난 1995년 6월 설립돼 현재까지 35억 13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학생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1월의 세테크 찬스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10% 할인

"1월에 자동차세 내면 세금도 아끼고, 세수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랍니다".

임실군에 살면서 에쿠스 차량(EQ900·3778CC)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생각이다.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 때문이다. 자동차세를 일년에 두 번에 걸쳐 98만원 가량 납부해 온 A씨 입장에서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만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A씨처럼 자동차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지난 8일날 발송한 상태다.

지난 해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가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연세액 신고납부 독려

순창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세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독려에 나섰다.

다른 세목과는 달리 자동차세는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가 있어서 1월에 연납하면 10%를, 3월에 연납하면 7.5%를, 6월에 연납하면 5%를, 9월에 연납하면 2.5%를 각각 공제받게 된다.

순창군은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은 1월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면 금년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신고 대상자는 전년도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해당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는 전국 어디에 전출을 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순창군은 1월10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접수건에 대하여는 11일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1월31일까지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방분권 새 모델 발돋움

남원시 노암동, 복지환경 개선시범사업 선정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읍면동 복지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노암동이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2,2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국 3,503개 읍면동(2017년 1월 기준)에서 20개 시범 읍면동을 고르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도내에서는 전주시 노송동과 남원시 노암동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암동에서는 올해부터 공간혁신사업과 마을계획실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주민접근성과 복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암동행정복지센터를 참여와 소통의 중심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 간다.

또한 마을계획실행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남원시의 자치역량과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노암동을 선정한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활성화로 뒷받침되는 지방분권의 새 모델을 남원시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청실홍실 뜨개반, 금암봉 영화제, 골목놀이터 등 다채로운 특화사업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남원시 노암동은 이번 사업에 걸맞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황금숙 노암동장은 "노암동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컨설팅과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을 "꾸준히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고, "읍면동 복지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중심 행정혁신의 전국적 모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

순창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가 감면대상이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